KOBRE & KIM | DISPUTES AND INVESTIGATIONS

통찰력

Benjamin Sauter 변호사, Wired에서 와이오밍주의 암호화폐 법제와 연방정부의 규제 논의

2019 06 13

코브레 & 김의 Benjamin Sauter 변호사가 암호화폐 산업이 직면한 각종 규제 사안에 관한 경험과 통찰을 기반으로 Wired에서 와이오밍주의 암호화폐 친화적 주법, 그리고 연방 차원에서 유사한 입법이 이루어질 가능성을 논했습니다.

와이오밍주는 13건의 블록체인 법을 입법하였는데, 이는 명백한 연방 규제의 부재에 대응한 암호화폐 로비 단체의 활동에 따른 결과입니다. 와이오밍주의 입법은 몇몇 디지털 토큰을 주법상 증권 규제의 적용제외 대상으로 지정했으며, 암호화폐에 대한 주 재산세를 면제하였습니다. 이는 와이오밍주 내에서는 상당한 변화이지만, 다중관할적이며 “경계가 없는” 블록체인과 관련 거래의 성격은 암호화폐 산업 종사자들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제기할 전망입니다. 많은 이들이 와이오밍주의 이번 입법이 더욱 호의적인 연방 규제를 향한 초석을 놓을 수 있을 지 지켜보고 있습니다.

Benjamin Sauter 변호사는 “이러한 발상이 연방 차원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을지 저는 회의적입니다. 그럴 만한 정치적 의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전체 기사는 여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 광고. 이전 사건의 결과가 이후 사건에서의 비슷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